

이슈

2

2019년 9월 3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제3158호

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씨 마약 숨겨 들여오다 공판 세관에 적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해외에서 구입한 마약을 항공편으로 국내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미국발 비행기 1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씨는 항공화물 속에 변종 마약인 엑상대마 카트리지 수십여 개를 숨겨 들여오려다 발각됐다. 이씨는 검찰이 진행한 소변검사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엑상 대마 밀반입 경위 등을 조사받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조치됐다. 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이씨는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식품전략기획1팀으로 보직을 옮겼다.



이선호씨

정운용 기자 sadzoo@donga.com

내가 왜 떴게?

과연 브레인의 DNA



박지선

●박지선, 1 대 100 : 게그계 최고의 브레인 박지선이 과거 KBS2 '1 대 100'에서 우승해 받은 상금에 대해 언급했다. 박지선은 '1 대 100'에서 유일하게 두 차례 우승한 기록의 보유자로 상금은 모두 부모님께 드렸다고. 부모님은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네 결혼자금으로 쓰마"라고 했는데 입금이 되자마자 냉장고가 양문형으로 바뀌고 새시가 3중창으로 두꺼워지더라고 털어놔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역시 뇌섹 DNA. 부모님이 진정한 브레인이시네요.

말라서 걱정, 찌니까 악플?



슬리피

●슬리피, 16kg 증량

래퍼 슬리피가 살을 찌웠다가 악플 800개를 받았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너무 말라 '슬쵸비(슬리피+쵸비)'라고 불리던 그는 팬들이 너무 걱정해 체중을 늘렸다는 것. 그런데 16kg은 좀 심했나 보다. 이번엔 "먹고 살만 켜냐"라는 악플이 우수수. 16kg 찌니 보기 좋기만 한데요 뭐. 이참에 먹방 한 번, 쵸?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1일 밤 SNS 띄운 마지막 인사의 의미

구혜선 연예계 잠정은퇴

에세이집 행사 끝으로 연예활동 중단
안재현과 파경 극단적 갈등 부담된듯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복학할 예정

최근 연기자인 남편 안재현(32)과 파경 위기에 처한 구혜선(35)이 연예활동을 중단한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2일 스포츠동아에 "그가 현재 준비 중인 에세이집 '나는 너의 반려동물'을 마지막으로 잠정적으로 연예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대학교 복학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혜선은 2011년 성균관대 예술학부 영상학과에 입학했지만 졸업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정 변호사는 "성균관대에 복학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예계 잠정은퇴를 결심한 구혜선은 10월 초 펴낼 예정인 에세이집 '나는 너의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끝으로 무대에서 내려온다. 출판사 자음과모음 관계자는 "출간 관련 행사를 기획 중이지만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구혜선이 작가로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2016년 5월21일 결혼한 안재현과 불화로 파경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18일 관련 사실을 알린 그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을 원한다"는 안재현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SNS로 첨예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1일 밤 자신의 SNS에 "나는 너의 반려동물" 출간을 앞두고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덧붙여 '은퇴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일었다.

구혜선의 갑작스러운 연예계 잠정은퇴는 안재현과 겪고 있는 갈등의 와중에서도 SNS를 통해 전시회 참여, 책 출간 등 활동과도 엇갈려 눈길을 모은다. 그의 주변에서는 안재현과 극단적인 갈등에 따른 부담감 때문이라



파경 위기로 구설에 오른 구혜선이 연예계 잠정은퇴의 뜻을 밝혔다. 연기활동을 중단하고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스

는 시선을 보낸다.

더불어 그가 몸담고 있는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갈등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 구혜선은 "신뢰를 깨뜨린 소속사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며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아직 계약은 유효한 상황이다. 이에 정 변호사는 "(전속계약)해지 통보서는 이미 회사에 발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중적 관심이 집중된 이혼 문제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여전히 결혼생활 유지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재현은 최근 법률대리인과 만나 이혼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류현진

류현진 NL 사이영상 정면돌파

로버츠 감독, 휴식 없이 5일 홈 콜로라도전 등판 예고
벌랜더는 3번째 노히트노런...AL 사이영상 독주모드

흔돈의 내셔널리그(NL)와 독주체제의 아메리칸리그(AL), 미국 메이저리그의 사이영상 레이스가 리그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NL 사이영상 후보군 중 한 명인 류현진(LA 다저스)으로는 다음 등판인 콜로라도전이 더욱 중요해졌다.

류현진은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콜로라도와 홈경기에 선발등판한다. 어느 때보다 호투가 절실한 상황이다. 8월 18일 애틀랜타전을 시작으로 30일 애리조나전까지 3경기에서 14.2이닝 18실점으로 고전했기 때문이다. 류현진의 8월 4경기 평균자책점은 7.48까지 뛰어올랐다. 메이저리그는 물론 KBO리그 시절까지 범위를 넓혀도 '최악의 한 달'이었다.

미 현지언론은 류현진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일단 콜로라도전까지는 등판 일정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류현진을 믿는 셈이다. 하지만 안방에서 콜로라도를 상대로도 부진하다면 이러한 신뢰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류현진의 독주체제로 여겨졌던 NL 사이영상은 이제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 스티브 스트라스버그(워싱턴), 클레이튼 커쇼(다저스) 등이 팽팽히 경쟁 중이다. AL이 벌랜더 독주체제인 것과 대조된다.

벌랜더는 2일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토와 원정경기에서 선발등판, 9이닝 14삼진 1볼넷 무실점 '노히트' 역투로 시즌 17승(5패)째를 챙겼다. 2007년 밀워키전(12삼진 4볼넷), 2011년 토론토(4삼진 1볼넷)전에 이은 개인 통산 세 번째 노히트노런이었다.

내용도 극적이었다. 8회까지 0-0으로 팽팽히 맞서며 벌랜더의 대기록 수량이 불투명했지만 9회 휴스턴 신인 아브라함 토로가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승기를 가져왔다. 노히트노런 3회 이상 달성한 건 벌랜더가 역대 6번째다.

AL 사이영상도 성큼 다가왔다. 벌랜더는 이날 승리로 AL 다승, 이닝, 평균자책점, 탈삼진 등 대부분의 기록 선두 자리를 굳건히 유지했다. 팀 동료 게릿 콜을 비롯해 찰리 모튼(애틀랜타) 등의 경쟁자가 있지만, 각종 지표에서 벌랜더를 따라가지 못한다.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저스틴 벌랜더가 2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토와 2019 메이저리그 원정경기에서 9이닝 14삼진 1볼넷 무실점으로 노히트노런을 거뒀다. 개인 세 번째 대기록이다.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도 눈앞이다.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고 표호하는 벌랜더.

토론토(캐나다) | AP뉴시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원들이 2일 인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제27차 이사회가 열린 가운데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 및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최종 6·7차 권고 발표를 규탄하는 펼침막을 들고 있다.

인천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KOC 분리는 부적절...체육회 목소리도 들어달라”

체육회, 자체 스포츠시스템 혁신안 발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를 골자로 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체육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자체 스포츠시스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체육회는 2일 인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신차용 선수촌장과 김승호 체육회 사무총장이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 직속의 '국가스포츠위원회' 또는 체육부를 신설해 부처·단체별로 분산된 체육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OC 분리는 체육계의 동의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승인이 필요하고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율성을 강조한 올림픽 헌장에 위배된다. 2032년 하계올림픽·2024년 유스동계올림픽의 유치 준비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체육회의 생각이다.

체육회는 그밖에 ▲학교체육수업 확대(주 3회

이상) 및 학교스포츠 지도자 배치 확대(학생 200명당 1명) ▲국가대표 훈련시스템 개편(연중 상시합숙을 단기합숙 또는 비합숙 전환, 지도자 처우 개선, 선수촌 확대 개방) 등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물론 체육회도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일방통행식의 무리한 정책 추진은 부담스럽다. 김 총장은 "혁신위의 권고도, 체육회의 혁신안도 모두 중요하다. 문체부가 체육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했고, 신 총장은 "2020도쿄 올림픽이 임박했다. 당장의 시스템 정비는 어렵다. 체육발전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현장의) 많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체육회는 이날 제27차 이사회를 열어 혁신안 마련 이외에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민간 시군 체육회장을 선거로 뽑는 시도체육회 규정개정 의견 등을 논의했다.

인천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